원폭 희생자 위령 아미타불, 67년 만의 귀향

1950년 원폭돔 근처 사찰에 봉안
1955년 일시 폐사되며 소재 묘연
2011년 4백km거리 나라현서 발견
지난 7월 1일 히로시마 이운 점안

박영빈 객원기자


히로시마로 돌아온 '히로시마 대불'.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령하기 위해 히로시마 시내 사찰에 봉안됐던 거대한 아미타불상, 행방불명되었던 '히로시마 대불'이 약 67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다. 전쟁의 아픔과 평화를 위한 불상의 귀향을 지난 7월 3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1950년, 미군정 치하의 일본에서 원폭 희생자들을 위령하기 위해 높이 약 4m에 달하는 아미타대불이 폭심지였던 원폭 돔 근처 사찰에 봉안됐다. '히로시마 대불'로 명명된 이 불상은 13세기경에 조성된 목조 좌불로, 봉안 이후 매년 원폭투하일인 8월 6일마다 지역 부흥을 위한 여름 축제를 겸하여 성대한 법회가 봉행됐다. 당시 기록과 사진자료들에 따르면 5마리의 소가 끄는 우차에 불상을 모시고 시 중심가를 순회하는 행렬을 하는 등 지역에서 소중하게 모셔져왔다,

그러나 1955년 히로시마 재정비 사업으로 불상이 모셔진 사찰이 일시 폐사되면서 불상의 행방과 소재가 불명확해졌다. 그러다 지난 2011년 원 봉안처에서 400km가 떨어진 나라현의 한 사찰에서 대불이 발견됐다.

나라현에 소재한 천년고찰 고쿠라쿠지(極楽寺). 주지인 다나카 젠기 스님은 "선선대 주지스님이 고물상을 통해 모셔왔다. 당시 스님껜 '히로시마에서 온 부처님'이라고만 전해 들었다"며 고쿠라쿠지에 봉안하게 된 내력을 전했다. 스님은 "이후 고서점에서 발견한 사진집에 이 불상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곤, 혹시나 히로시마 대불이 아닌가 생각해 나라국립박물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011년 나라박물관은 고쿠라쿠지에 안치된 불상이 '히로시마 대불'임을 확인하면서 코쿠라쿠지는 원폭투하일에 맞춰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매년 올려왔다.

행방불명되었던 대불의 발견은 히로시마 불교계에 큰 기쁨을 안겨 줬다. 이후 젠기 스님은 "고향으로 한 번이라도 돌려보내고 싶다"고 발원, 히로시마 불교계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발족하여 방법을 모색했다. 먼저 대불을 안치할 장소부터 난항이었다. 위원회는 여러 장소를 물색한 끝에 본래 원폭희생자들을 위해 일부러 폭심지 근처에 봉안했던 역사에서 원폭돔이 내려다보이는 빌딩의 전시장을 빌려 봉안하기로 결정했다. 비용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금하여 불상의 귀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지난달 21일, 히로시마 대불은 머리, 몸체, 발 셋으로 분리되어 히로시마로 이운됐다. 이운을 담당한 업체는 "평소 대형 기계의 운반이나 설치를 주로 하고 있으나 대불 운반은 처음이었다"며 "희생자들을 돌보는 부처님이 원래의 자리로 오신다는 말에 큰 책임을 느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1일, 히로시마 불교계의 스님들이 모여 봉행된 점안식에서 젠기스님은 "뒤를 이어나갈 젊은 세대들이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평화를 사랑하길 바란다"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불상이 귀향한 의의를 전했다. 히로시마 대불은 오는 9월까지 히로시마에 봉안되며, 오는 8월 6일엔 옛날의 행렬과 천도재를 다시금 부활할 계획이다.

티베트불교, 印에 불교연구소 만든다

겔룩파, 달라이라마 의지로 설립
날란다대학 학문·연구 보존 목적


국제불교연구소 기자회견에 참석한 달라이라마와 각계 교수들. 사진출처=더 티베트 포스트

티베트 온라인 언론 '더 티베트 포스트'는 7월 4일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 중 하나인 겔룩파가 설립한 '겔룩파 국제재단'이 국제불교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4일 인도, 맥그로드 간즈에 위치한 노르부 하우스 호텔의 피스 홀에서 국제불교연구소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14대 달라이라마와 함께 겔룩파 국제재단의 위원인 간댄 티 린포체, 장체 최제 린포체와 전 국제유전자-생명공학센터장 비란더 차우한 교수 등이 연구소 설립을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현 달라이라마의 목표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겔룩파 국제재단 측은 "이 국제불교연구소는 고대 인도불교의 지혜와 교육을 미래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고망 사원의 전 방장 게쎄 롭상갤챈 스님은 "이 불교연구소는 5세기에 인도 비하르 주에 있었던 날란다 대학에서 티베트 불교로 도입되어 수세기 동안 발전한 독특한 형태의 교수법과 교학 연찬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육과정이 고대 날란다 대학의 전통에서 비롯됐음을 밝혔다. 이어서 "기존 전통강원이나 불교대학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과목에 대한 자체적인 학습 과정을 개발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며 "연구소는 대학으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겔룩파 국제재단은 현재 국제 불교연구소의 커리큘럼에는 비교종교학, 현대과학과 불교과학, 서양철학, 불교사학, 언어학같이 전통적인 강원체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대 과목들을 가르칠 예정이며 인도의 여러 사찰과 강원에 이 연구소의 지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쇽 타쿠르 교수는 "불교 관련 기관에 속한 젊은이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불교와 티베트의 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불교연구소 설립은 불교 보전과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달라이라마와의 토론에서 불교 연구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20년 방치한 불교유적 보존 작업 돌입

1986년 힌두사원 무너지며 발견
아쇼카왕 초상 조각 출토돼 눈길


20년 넘게 관리 소홀로 방치됐던 칼라부라기 유적의 대탑지. 사진출처=더 힌두

2001년 일부 발굴 후 방치됐던 고대 불교유적지가 드디어 체계적인 보존 작업에 들어간다. 7월 11일 인도의 '더 힌두'는 그동안 간과됐던 남인도 칼라부라기(Kalaburagi) 지구 불교유적에 대해 보도했다.

카르나타카주의 칼라부라기 지구에 있는 카나가나할리(Kanaganahalli)유적과 산나티(Sannati)유적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사이에 조성된 불교유적으로 아돌로까 마하 차이티야(Adholoka Maha Chaitya)로 언급되는 대탑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1986년 유적지 위에 새워졌던 힌두사원이 무너지면서 그 잔해를 치우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유적지는 아쇼카 대왕의 칙령이 새겨진 비석이 발견되어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994년과 2001년 유적지의 일부 구역이 발굴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진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적지들은 특히 중심부에 세워진 대탑 이름 비문과 함께 250구 이상의 고대 비석들이 발견됐다. 특히 이 가운데엔 왕이 왕비와 시녀들에게 둘러싸인 부조상이 있는데 여기에 '아쇼카왕'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현재로는 유일하게 확정적인 아쇼카 대왕의 초상조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구 가량의 불상, 250구 이상의 비석 등도 함께 출토됐다. 그러나 발굴된 유물들은 유적지 한편에 임시로 세워진 슬레이트 창고에 보관돼 왔다.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의 마헤쉬 와리 지역이사는 "그동안 이 곳은 지역 정부로부터 20년 넘게 무시되고, 방치돼 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2001년 발굴 작업 후 이 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하고 불교성지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계획이 이행되지 못했으며 일부 학자들과 불교신자들이 방문한 것 외에는 유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3동의 창고와 무장경비원만이 유적지를 지키는 황량한 모습이 이어졌다. 2009년에는 주정부가 박물관과 연구소, 현장직원 숙소 등을 건립하겠다고 나섰으나, 관리주체를 ASI로 양도하지 않아 유물들을 옮기지 못하는 등의 일이 지속되고 있다. 아쇼카왕의 초상역시 불과 6개월 전에 단독 유리관에 안치됐다.

현장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니킬다스는 "이 유적지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충분히 등재될 가치가 있다. 가장 먼저 무너진 대탑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첫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모든 유물들을 박물관에 수장하고 전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대탑을 복원하고, 출토된 유물들을 출토지에 다시금 온전하게 재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ASI측은 대탑의 복원과 함께 파괴된 비문과 부조 불상들에 대한 복원 작업도 진행 중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파키스탄 내 유일 불탑, 만키알라 스투파

최근 종교 관광 활성화 위해 외국인에 개방


만키알라 스투파 전경. 사진출처=더 뉴스 온 선데이

지난 7월 10일 파키스탄 주간지 '더 뉴스 온 선데이'는 파키스탄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불탑을 소개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인근 군사 중심지 라왈핀디에는 파키스탄에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불탑 만키알라 스투파가 있다.

중세에 이 지역 역사가였던 무함마드 알리프 민하스 저술서 〈라왈핀디의 역사〉에 따르면 카니슈카 왕의 제4차 불전결집 내용이 만키알라 학자들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수많은 불교사원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라왈판디 지역이 고대 불교의 중심지 중 하나인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영국의 역사학자 존 키이는 〈인디아 디스커버리〉라는 책에서 "만키알라 스투파는 추가적으로 조사할 가치가 있다"며 탑에서 발굴된 유물들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했다.

키이는 "벤츄라가 란짓 싱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부처님 모습이 새겨진 첫 동전을 비롯해 금과 보석, 동전들이 가득 든 원통형 상자를 발굴했다고 한다. 또한 말뼈로 추정되는 조각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현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사리장엄구"라고 말했다,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종교 관광을 촉진하고 세계에 평화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종교 관광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만키알라 스투파 주변에 경계 벽을 세워 해외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만 개방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